



오늘의 날씨와 생활

5월 14일 화요일 음 4월 10일 (1물)

기상정보

흐리고 한때 비



제주도남쪽해상을 지나가는 기압골의 영향으로 흐리고 산지와 남동부에는 새벽 한때 비가 조금 오는 곳이 있겠고 낮부터는 구름이 많겠다. 아침 최저기온은 16-17°C. 낮 최고기온은 23-24°C가 되겠다. 바다의 물결은 전 해상에서 1.0-2.0m로 일겠다.

Table with 4 columns: 오전, 강수 확률, 오후, and percentage values for precipitation probability.

Table with 2 columns: 해돋이 (05:35), 달뜨기 (14:26), 해질 (19:26), 달지기 (02:46), and moonset (19:43), moonrise (13:47).

Table with 2 columns: 내일, 구름 많음, 17/24°C and 모레, 구름많고 비, 18/24°C.

Table with 2 columns: 생활·안전 기상정보, 식중독지수, 자외선지수, 관심, 매우높음.

월드뉴스

미중 협상결렬에 아시아 주가 하락

안전자산만 '강세'

미국과 중국의 무역협상 결렬로 13일 오전 문을 연 아시아 주요국 증시의 주가가 하락세를 이어갔다.



미중 무역협상에 금융시장 촉각.

향후 협상 전망에 대한 불안감이 커지면서 미국 국채와 일본 엔화 등 안전자산에 자금이 몰려 강세를 보였다.

지난 주말 열린 미국과 중국의 무역협상이 아무 성과없이 끝나면서 향후 전망도 불투명해졌는데 따른 것으로 분석된다.

이날 오전 10시 37분 현재 중국 상하이 종합지수는 2,903.34로 전 거래일보다 1.22% 하락했다.

미국은 예고대로 10일 0시 1분(미국 동부시간 기준)을 기해 2천여 달러 규모의 중국산 수입품에 적용하는 관세율을 25%로 인상했다.

선전종합지수도 전 주말 증가보다 0.93% 내린 1,554.04에 형성됐고 대만 자취안 지수는 0.77% 떨어졌다.

금융시장의 불안감이 커지자 안전자산은 강세를 보였다.

일본 증시에서는 닛케이225 지수가 0.66%, 토픽스는 0.24%의 하락률을 보였다.

일본 엔화도 전장대비 0.19% 오르며 달러당 109.74엔 선까지 상승했다.

한국 코스피는 0.81% 내려 2,100선이 무너졌고 코스닥은 0.14% 떨어졌다. 호주 S&P/ASX200 지수는 0.40% 떨어졌다.

한편 중국 위안화는 역외시장에서 0.4% 하락한 달러당 6.8731선에서 거래되며 약세를 보였다. 연합뉴스

한라일보 contact information including website, phone, fax, and address details.

한라칼럼



문만석 (사)미래발전전략연구원장·법학박사

유네스코 세계자연유산인 제주 성산 일출봉과 만장굴의 관람료가 1년 유예기간이 지나 7월부터 2배 이상 오른다. 이는 작년 조례 개정 때 따른 요금 현실화의 의미를 지니고 있으나, 넘쳐나는 관광객으로 훼손되는 제주의 자연환경을 보호하자는 당위와 환경보전 기여금 도입의 징검다리 성격을 지니고 있기도 하다.

제주는 최근 오버 투어리즘 논란에 휩싸여 있다. 필리핀 민다나오 등에 반출된 제주산 암초쓰레기는 제주 쓰레기 처리의 한계를 여실히 보여주었고, 오·폐수 처리용량 및 교통 혼잡도

환경보전 기여금 논란에 부쳐

입계점을 넘어지고 있다. 제주도는 이를 타개하기 위해 '원인자 부담 원칙'을 적용해 관광객에게 '환경보전 기여금'을 부과하고자 한다. 제주도가 부과하려는 '환경보전 기여금'은 숙박과 렌터카 이용요금 등에 적용되어 관광객 1인당 평균 8170원이 부과될 예정으로 입도세 성격을 지니고 있다.

이와 유사한 관광세는 오버 투어리즘 논란과 더불어 세계 곳곳에서 시행되고 있다. 한해 3000만 명이 찾는 관광도시 베네치아는 숙박요금에 부과되는 체류세에 더해 올해 5월부터 방문하는 관광객 모두에게 1인당 최대 10유로의 방문세를 내도록 하고 있다. 인도네시아 발리는 외국인 방문객이 출국할 때 10달러를 징수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고, 일본 또한 출국하는 내·외국인에게 1000엔의 국제관광객세를 부과한다. 바르셀로나, 암스테르담, 파리 등의 관광도시도 숙박요금에 체

류세 명목의 관광세를 부과하고 있다.

제주도의 환경보전 기여금은 그 당위성에도 불구하고 몇 가지 문제점을 지닌다. 먼저 환경보전 기여금의 성격이 명확히 하여야 한다. 관광세는 오버 투어리즘의 반작용에서 나오는 해결책이고, 관광세 부과는 결국 관광객 유입을 제한하려는 의도에서 시행된다. 2010년대 중반 이후 급격히 증가하던 제주의 관광객은 굳이 제한하지 않아도 2018년 100만 명 이상이 감소했고, 순유입 인구의 증가폭도 확연하게 줄어들고 있다. 관광세 부과는 4000만 명 이상의 관광객을 상정하여 추진되고 있는 제2공항 건설의 당위성과도 상충된다.

환경보전 기여금은 형평성에서도 문제가 된다. 타 시·도와의 형평성에도 저해되고, 민박 등 장기체류하는 관광객은 부과대상에서 벗어남으로써 제주도에 입도하는 관광객 간 형평성

에도 위배된다. 이는 헌법의 거주 이전의 자유를 침해하는 것이기도 하고, 헌법소원의 대상이 될 수도 있다. 또한 외국 사례의 공통점은 외국인 관광객이 다수를 차지하는 반면, 제주도는 내국인 관광객이 대다수를 차지하고 있다. 일본의 경우는 국가적 차원의 세금이지만, 제주도의 경우는 지자체 차원의 세금이다.

환경보전 기여금 시행은 절차적 난제도 앞두고 있다. 기재부 등의 부담금관리기본법 개정, 제주특별법 개정 등 넘어야 할 장애도 많다. 입도세 부과 이전에 제주의 수용력을 고려한 인프라 확충 및 시스템 정비를 서둘러야 한다. 충분히 손본 맛을 준비한 이후에 당위성과 이해를 구하는 것이 순서이다. 신뢰를 얻기는 힘들어도 잃기는 쉬우므로, 제주 브랜드의 신뢰를 유지하기 위한 종합적인 대책을 고려하여야 한다.

열린마당

사학 발전의 골든타임 지켜내길...



임선희 제주도교육청 사무관

도내 사학기관을 대상으로 공공성 강화방안을 마련한지 3년. 드디어 그 결실이 맺어지고 있다. 10개 사학법인 중 3개 사학법인이 공공성 강화 방안을 반영해 정관 개정을 완료했거나 추진 중이다.

사학기관의 의사결정기구인 이사회, 교원인사위원회, 학교운영위원회가 대표적이지만 이 세 기구의 의사결정은 학교발전 및 학생교육에 중요한 영향을 미친다. 따라서 민주적 구성과 운영이 중요하다 하겠다. 그래서 이사 중 개방방사는 동문이나 지역사회 외부인사 선임을 권고했고 교원인사위원회와 학교운영위원회 교원위원은 기존의 학교장 임명방식에서 탈피해 교직원 전체회의에서 추천 또는 무기명투표로 선출하는 방식을 권고했다.

이러한 권고사항들은 사학의 발전을

한 단계 견인하기 위한 것임에도 불구하고 법적 근거가 없다는 한계와 자율성 침해라는 논리에 부딪쳐 한걸음도 자리걸음해야 했다. 특히, 개방방사는 이사회 운영에 투명성과 객관성을 제공할 수 있음에도 정관에서 구체적 자격기준을 명시하지 않아 일반이사와 차별화되지 못한 채 운영돼 왔다.

이런 어려움 속에서도 '교육 공공성과 신뢰'라는 원칙 위에서 서로의 입장 차이를 좁히고자 노력했고, 드디어 첫 결실이 맺어졌다. 지난 4월, 삼성학원이 권고사항을 학교법인 정관에 반영해 지속적 이행의지를 담아낸 것이다. 도내에서는 물론 전국 최초의 정관 반영 사례다.

교육의 본질과 아이들의 미래를 바라보는 전향적인 결정을 해준 사학기관에 감사드린다. 사학의 발전 방향이 '교육의 공공성 강화'라는 것은 모두가 공감할 것이다. 그렇기에 사학기관 나름대로 내부의 고민과 입장이 있었지만, 기민한 의사 결정으로 '사학 발전의 골든타임'을 함께 지켜내 주길 기대한다. 더불어, 제주도로부터 시작된 변화의 바람이 전국으로 확산되어 전국 사립학교 발전의 동력으로 승화되길 희망해 본다.

'함키' 출산·공동육아 지원서비스 전개



김성익 한국전력 제주본부 차장

한전 제주본부는 출산과 공동육아에 대한 실질적 지원 및 정보제공으로 저출산으로 인한 사회적문제 해결에 적극 동참하고자 '지역과 함께, 아파와 함께 키운다'는 뜻을 담은 '함키출산 및 공동육아 지원 서비스'를 전개하고 있다.

서비스 주요 내용으로는, 지방자치단체 및 관련 기관단체별로 산재해 있는 출산·육아지원 정책에 대한 정보를 한눈에 알아볼 수 있도록 '함키수첩'을 제작해 출산가정에 배부하고 있다. 함키수첩에는 육아에서 아파와의 적극적인 교감이 아이의 정서적, 신체적 발달에 핵심적 역할을 한다는 '아빠호과'에 대한 설명과 함께 제주특별자치도에서 시행중인 육아지원 정책 및 국가 육아지원 사업정보, 제주지역 영유아 검진기관, 심야운영 및 연중무휴

약국 현황 등 출산가정에서 꼭 필요로 하는 육아 정보들이 담겨 있다.

둘째, 생후 2개월까지의 영유아를 두고 있는 가구에는 자녀의 시각 개발을 위한 초점책, 색 구분이 가능한 생후 2개월 이후 자녀를 두고 있는 세대에는 색감책을 나눠 주고, 자녀의 첫돌을 맞는 가정에는 육아에서 아빠의 역할과 소중함을 자연스럽게 아이와 나눌 수 있도록 구성된 '함키동화책'을 제작, 배부하고 있다.

셋째, 제주지방경찰청과 함께 아동실종 방지를 위해 '아동지문 등록제' 홍보 캠페인을 전개하는 한편 다문화가정을 위한 '전기요금 할인 및 편익정보 안내문'을 중국어, 베트남어, 네덜어로 제작해 배포하는 등 다양한 활동을 펼치고 있다.

이 밖에도 출생일로부터 3년 미만인 자녀가 있는 세대를 대상으로는 '출산가구 전기요금할인 제도'를 시행하고 있다.

한전 제주본부는 출산가정에 대한 지원서비스를 통해 우리 사회의 저출산 사회문제에 기여하고 지역사회에 공헌하는 등 공공기업으로서의 사회적 책임을 계속해서 성실히 수행해 나갈 계획이다.

Advertisement for '시민장 의사' (City Resident Doctor) featuring a testimonial from a former mayor and contact information for a clinic in Seogwipo.

Advertisement for '마블인' (Marble In) featuring various stone products like granite, limestone, and marble, with prices and contact details.